

# ‘카나리아 군단’ 유니폼이 제일 잘 나가!

(브라질 대표팀)



## 고주(gozo)한 브라질

〈즐거움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 **꽃 텔레그래프가 말하는 ‘유니폼의 미학’**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 강력한 함축 프랑스 유니폼은 선수들 자신감 키워줘 한국 대표팀 홈 유니폼 5점 만점에 4점 최악은 ‘공사장 인부 연상’ 일본 유니폼

유니폼은 기능적으로는 플레이하기에 편하고, 미적으로는 아름다워야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팀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핀 스트라이프(줄무늬)를 보면 뉴욕 양키스의 강력함이 떠오른다. 푸른색은 LA 다저스, 붉은색은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징한다. 내셔널리그(민족주의)이 뿌리에 박혀있는 축구에서 유니폼이 주는 메시지는 더욱 강력하다. 2014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을 각국의 미의식과 개성을 함축한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그러나 제3자가 바라보는 미적 감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다룬 ‘유니폼의 미학’에 동의할지는 온전히 독자들의 몫이다.

### ●최고의 유니폼은 브라질

이 신문은 브라질대표팀의 유니폼을 최고로 꼽았다. 브라질 유니폼은 노란색 상의에 파란색 바지로 구성되는데, 원색의 강렬한 느낌을 주는 전통적 유니폼이다. 브라질은 이 때문에 셋노란 카나리아 새에 빗대 ‘카나리아군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브라질 내에선 대표팀을 ‘셀레상(선택받은 자)’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브라질 유니폼은 선명한 정체성과 더불어 미적 감각을 뛰어넘는 강력함을 함축하고 있다. 마치 새빨간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었던 해대 타이거즈 유니폼이 촌스럽기는커녕 멋있게 보였던 것과 같은 이유다. ‘레블뢰’ 프랑스대표팀의 유니폼도 극찬을 받았다. “유니폼이 세련돼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찬사가 따랐다.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유니폼이 상당한 호평을 들었다는 점이다. 5점 만점에서 원정 유니폼은 3점, 홈 유니폼은 4점을 받았다. 홈 유니폼에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화는 태극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색하지 않다. 대표팀의 정신력을 담고 있는 듯하다”고 호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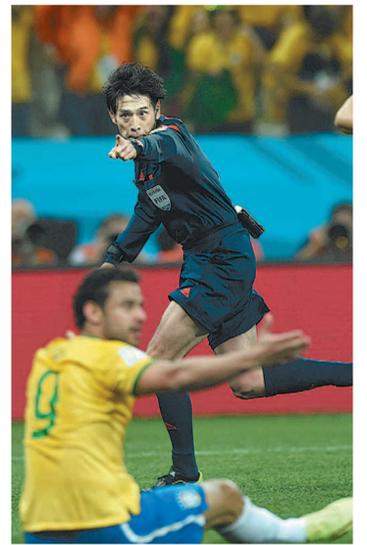
### ●최악의 유니폼은 일본

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독일, 스페인 등은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일본은 최악이라는 혹평을 감수해야 했다. 노란색 계통의 형광색을 바탕으로 삼고 어깨에 푸른 줄, 등에 오렌지색 굵은 줄이 들어간 원정 유니폼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일본은 브라질 축구경기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공사장 인부가 입는 안전보호용 조끼 같다는 조롱이다.

기묘한 우연은 최악의 유니폼 평가를 들은 나라들의 초반 행보가 대개 안 좋다는 사실이다. 첫 경기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아르헨티나에 1-2로 졌고, 스페인은 네덜란드에 1-5로 대패했다. 일본도 코트디부아르에 1-2로 역전패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121

## 황당 월드컵



스페인 스포츠전문사이트 ‘이스’는 15일(한국시간) 일본인 니시무라 유이치 심판을 빗댄 노래가 남미에서 완성됐다고 전했다. 13일 상파울루에서 열린 2014브라질월드컵 개막전의 주심을 맡았던 니시무라 심판은 브라질 공격수 프래드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아 페널티킥 판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파울루(브라질) | 신화뉴스

## 할리우드 액션에 페널티킥 “니시무라, 위대한 주심이어!”

### 크로아티아전 주심 조롱 노래 유튜브에 등장

●...2014브라질월드컵 개막전에서 논란의 페널티킥 판정을 내린 일본인 니시무라 유이치 주심을 조롱하는 노래가 만들어졌다. 스페인의 스포츠전문사이트 ‘이스’는 15일(한국시간) “니시무라 심판을 위한(?) 노래가 남미에서 완성됐다”고 소개했다. 이미 유튜브에 동영상상이 공개된 상황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일본인 주심이 브라질-크로아티아전에서 있지도 않은 페널티킥을 만들 어냈네. 위대한 주심이어!”와 같은 야유 섞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 제목은 ‘일본인 심판의 노래’다. 과장되게 쓰러진 브라질 공격수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아 페널티킥을 선언한 니시무라 주심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1-1 상황에서 빠픈 역전골을 허용했다. 결국 크로아티아가 1-3으로 패하자 세계적으로 동성 여론이 일었고, 이런 억울함을 제공한 일본인 주심을 향한 비판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브라질월드컵 최초의 탈락자가 나왔다. 뜻밖에도 선수가 아니다. 잉글랜드의 피지컬 트레이너 개리 레윈이 이 희극적 비극의 주인공이다.

레윈은 15일(한국시간) 조별리그 D조 첫 경기 이탈리아전에서 0-1로 뒤지던 잉글랜드가 전반 37분 동점골을 얻자 벤치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필쩍필쩍 뛰다가 착지를 잘못해 발목을 다쳤다. 아픈 선수를 보살펴야 할 트레이너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촌극이 빚어졌다. 그러나 레윈의 발목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게 됐다.

잉글랜드대표팀 로이 호지슨 감독은 16일 “우리 팀에 매우 슬픈 일이 벌어졌다. 레윈이 기뻐서 점프를 했는데, 착지하는 지점에 병이 놓여 있었다. 발목이 접질렸고 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더 이상 대표팀과 월드컵을 함께 하긴 어렵게 됐다. 그의 월드컵은 끝났다”고 밝혔다. 레윈이 노파리를 싸게 돼 잉글랜드대표팀은 보조 트레이너였던 스티브 켐프를 수석 트레이너로 승격시켜 남은 월드컵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121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멋진 유니폼은 성적도 보장한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2014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의 유니폼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1. 13일(한국시간) 크로아티아와의 개막전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는 브라질의 네이마르. 브라질은 최고의 유니폼으로 꼽혔다. 2. 프랑스 역시 세련된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극찬을 받았다. 3. 단순한 디자인의 스페인 유니폼(왼쪽)은 낙제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멋진 유니폼을 입은 브라질, 프랑스는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반면 스페인은 네덜란드에 1-5로 완패했다.



상파울루·포르투갈 텔레그래프·사우바도르(브라질) | AP·신화·뉴스

## 다이아몬드 귀걸이 호날두, 멋부리다 기자회견 지각?

### 외글외글 월드컵

●중국 아내들, ‘축구광’ 남편 두고 ‘나물라’ 여행? 중국의 ‘축구 미망인’들이 브라질월드컵을 맞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축구 미망인’은 축구에 빠진 남편을 뒤로 하고 “이때가 기회”라며 여행가방을 꾸리는 아내들을 말한다. 중국 한 여행사의 발표에 따르면, 18일 서울과 제주도 투어 신청자 24명 중 1명만 남성이다. 이처럼 큰 성별차는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일. 여행사 측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 명뿐인 남성 관광객을 여행사 남성 직원과 한 방을 쓰도록 했다. 대신 여성들을 위해 면세점 방문 등 쇼핑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스케줄을 긴급 변경했다.

### ●호날두, “잘 생겨서 무죄?”

포르투갈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축구 실력은 물론 몸치장에서도 세계 정상급이다. 독일전을 하루 앞둔 16일(한국시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무려 1시간이나 늦은 호날두는 지각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며 언급을 피했지만, 주변에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치장에 신경을 쓰다 늦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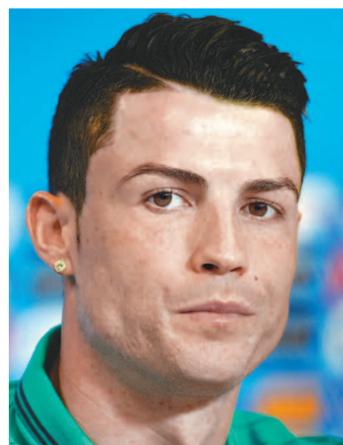
이날 호날두는 훈련복, 유니폼 차림의 다른 선수들과 달리 멋스럽게 평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했다. 헤어스타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2대8로 가르마를 타고는 왁스의 힘을 빌려 한 울 한 울 정성스럽게 빗질했다. 호날두는 최근 일본 인터넷 사이트 ‘사커킹’이 조사한 설문에서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중 ‘꽃미남’ 1위에 선정되

기도 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브라질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응원하지 않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명문 프로구단 산 로렌스 데 알마그로의 열혈팬이지만, 월드컵에선 어느 나라도 응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일간 라 벵가르디아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월드컵 기간 동안 중립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항상 맞수인 만큼 나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축구보다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야 하는 교황의 고인이 었보인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16일(한국시간) 공식 기자회견에 무려 1시간이나 늦었다. 그는 몸치장에 신경을 쓰다가 지각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우바도르(브라질) | AP·뉴스

## 홍명보호, 느린 수비 러시아 잡고 16강 간다

### ‘피파온라인’ H조 조별리그 시뮬레이션 공간 넓게 쓰며 빠른 공격이 득점 성공 키

브라질월드컵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18일 한국대표팀의 첫 경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경기는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다. 빅손의 ‘피파온라인’으로 H조 조별리그 시뮬레이션을 100회 실시한 결

과. 16강 진출 시나리오 중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한 경우는 54%를 차지했다. 16강 진출 최소승점은 4점으로 가정하면 83%로 매우 높았고, 최소승점 5점 가정 시에도 3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러시아전에서 무승부를 기록(승점 1점)하면 35%, 러시아전에서 패할 경우엔 17%로 낮아졌다.

### ●기성용 중원시령관 역할 충실



시뮬레이션 결과 ‘빚정수비’를 자랑하는 러시아를 상대로 공간을 넓게 쓰면서 빠른 공격 전개를 할 때 득점에 성공할 확률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표팀 공격전술의 핵심은 기성용과 이청용, 손흥민, 기성용은 러시아 수비수들의 스

피드가 느린 점을 심본 활용해 공을 열린 공간으로 연결하면서 중원시령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청용은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고 안정된 드리블로 상대를 돌파하며 크로스 연결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폭풍 같은 역습드리블로 단독 찬스를 만들어냈다. 후반엔 김신욱이 높이를 이용한 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또 러시아의 체력이 떨어진 70~80분 이후엔 속도가 장점인 이근호가 골문을 압박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 ●뒷공간 열리는 약점 보완해야

해결할 과제로는 최근 튀니지,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지적됐듯이 좌우 풀백들이 공격 가담이 커 뒷공간이 열린다는 점이였다. 러시아는 공간 활용과 세트피스 상황 시 직접 득점을 노리기보다는 이그나세비치와 베레주츠키의 머리를 이용해 같은 팀 선수의 발 앞에 공을 떨어트린 후 2차 기회를 노리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다. 또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끄는 코코린의 빠른 드리블 돌파에 이은 슈팅 또는 2선에서 투입되는 페스로 최전방 공격수인 케르자코프를 연결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